



코로나19! 몽골의 한국식품 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 몽골 보건부 매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



▲ 몽골 국가 전염병 관리센터장 D.Nyamkhuu

몽골의 코로나19 현황

발병 현황 몽골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1월 24일부터 매일 오전 11시에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현황, 정부대응 및 예방방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몽골은 중국과 약 5,000km로 접경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국가로 평가받았으나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에 대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3월 초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3월 10일 최초 확진자(프랑스인)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해외에서 전세기로 이송한 983명 중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4월 1일 기준 확진자가 총 12명으로 집계되었다.

몽골 정부의 대응

정부의 대응 몽골 정부는 2월부터 비상사태기간을 2차례 연장하여 4월 30일까지 국경을 폐쇄(화물 제외)하여 외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를 실시한 상태다. 또한 비상사태 기간 내 휴교 및 일부 영업소(극장, 피트니스, 키즈카페, 행사)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민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입국 금지 조치 시행하였다. 1월 27일부로 중국에서 비행기 또는 기차로 몽골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2월 1일부로 중국인 또는 중국을 통해 몽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한국과 몽골 간 항공편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한-몽골 간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을 3월 28일로 연장한 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자 4월 30일까지 2차례에 걸쳐 연장하였다. 또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체류했던 외국인의 몽골 입국을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지한 상태다.

그 외 모든 교육 기관을 비롯한 키즈카페 등 영업소의 영업을 중단하고 식량농업부에서는 국내 소비 부족 및 인플레이션 상승 예방을 위해 식품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였다. 각종 쌀, 설탕, 식용유 수입 관세 및 부가세를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코로나19가 몽골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와 몽골 농식품 경제 현황 몽골은 주요 식품 중에서 쌀(100%), 신선 채소류(49%), 과일류(94%) 등을 외국에서 수입 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한 항공 운송 중단 외 식품 수입의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기준 전체 식품 수입이 작년 대비 8% 증가했으나 몽골 전체 무역은 21%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식품 수입은 8%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검역·소독작업이 강화되어 통관 기간이 2~3일 지연되어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트렌드의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이 집 안에 머물면서 생존을 위한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몽골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면류, 식용유, 쌀, 차류, 설탕, 소금 등 생필품 소비가 약 2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개인 보건 및 위생에 대해 타인 접촉을 기피하여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식품 판매업체 및 관련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 업체들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

EMART Marketing manager, [Narantuya] 관계자 말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표 시 식품 구매량이 대폭 증가했고 쌀, 밀가루, 빵류의 판매가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매점 방문



▲ EMART 내 입장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소독작업을 하는 CU 편의점

고객들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온라인 구매량이 증가해 총 매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식품 수입에 변동이 없으나 항공 운송에서 해상 운송으로 옮기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중이다.

CU 편의점 판매 직원, [Erdenetsetseg] 코로나19 정보 대응으로 24시간 운영하던 매장을 저녁 10시까지 영업하고 있다. 교육기관들 개강 연장으로 주요 판매 흐름이 급격히 감소했다. 영업시간 조정으로 저녁 시간 때 잘 나가는 패스트푸드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 CU 앱을 통해 일부 매장과 연계하여 배달서비스를 활성화할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NARANTUUL 도매시장 상인, [Narmandakh] 한국산 식품 중에서 주로 식용유, 장류를 도매로 판매하고 있으나 최근에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 장류 수입 취급하는 회사인 I&R 경우 정상 공급하고 있으며 식용유 수입 업체인 Altangadas가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한인마트 MK supermarket 판매원, [Enkhsoyol] UB 시내에서 영업하는 한식당들이 MK 회사의 주요 고객층.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식당 이용 고객이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했다. 매장에서 서의 개인 고객들의 구매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한국에서 식품 수입이 통관 검역, 소독으로 인해 2~3일 정도 지연되고 있다.

몽골 한식당 <한대문> 사장, [Enkhsoyol] 식당이 시내 중심에 있으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주재료인 돼지고기, 소고기, 닭, 채소, 쌀 등을 현지 업체에서 공급받고 장류 및 조미료 등을 MK supermarket에서 공급받고 있다. 1월부터 하루 매출이 2~3배 감소하여 직원 수를 2배 감원했다. 임차료나 직원들의 급여를 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태가 지속하면 영업 중지할 수도 있다.

Key Point

한-몽골 양국 간 항공편이 4월 30일까지 임시 중단 상태. 물류 부문은 중단 없이 수송되고 있으나 수송 기간이 늘어나는 등 차질은 불가피하다. 한국 농식품 몽골에서 검역 작업 시 2~3일간 자체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3월 10일) 이후 확진자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임시 항공 운항 중단조치가 연장될 가능성 있어 수출업체들의 현장 방문에 애로가 생겨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몽골에 끼칠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타인과 접촉을 줄이는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소비가 부상하면서 온라인 물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몽골의 전문 온라인 물물 식품 판매가 저조하여 거의 비중이 작으며, 최근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식품 전문 온라인 물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또한 파워인플루언서,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